

KT·지멘스, '미래형 스마트 발전소' 구축 속도

양사 업무협약...발전소 스마트화 추세 공동 대응

KT와 지멘스가 ICT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발전소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KT(회장 황창규)는 지멘스(대표·사장 직무대행 캄추공)와 1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ICT 기반 스마트 발전소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T 한상현 공공고객본부장, 지멘스 석범준 발전서비스 사업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발전소의 스마트화 추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 협력사항으로는 ▲국내 스마트 발전소 사업개발 및 시범사업 공조 ▲무선망(LTE·IoT) 구축 및 발전설비 스마트 센싱·관제 ▲발전소에 특화된 AI, AR, 드론, 모바일 기반 스마트 서비스 발굴 및 확대 등이 있다. 우선 양사는 무선망 구축과 발전설비 스마트

센싱·관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KT는 지멘스 발전서비스 사업본부의 주요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다양한 ICT 역량과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전기전자 전문기업 지멘스는 발전, 송·변전,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전력 에너지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전력화·자동화·디지털화 영역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중에서도 지멘스의 발전서비스 사업본부는 산업용 발전소, 석유·가스 생산용 압축기 관련 솔루션 및 플랫폼 분야에 주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보안성이 확보된 기업전용 LTE를 구축해 왔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선보인 5G를 비롯해 IoT, AI, 빅데이터, AR·VR, 드론 기술 등 스마트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는 다

양한 ICT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지멘스가 가진 발전서비스 사업에 접목할 경우 양사의 사업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현 KT 공공고객본부장은 "글로벌 발전설비 전문기업 지멘스와 협력을 통해 국내 스마트 발전소 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KT가 보유한 무선 인프라와 ICT 역량을 총동원해 오프라인 중심의 발전소 작업 환경을 모바일 기반의 지능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석범준 지멘스 발전서비스 사업본부장은 "스마트 발전산업은 국내 첨단 스마트시티 구축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멘스는 전 세계 발전설비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용하며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KT와의 협력 사업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정일 기자 yunji@

전 세계 방송·음향·조명기기 '현재와 미래 엮는다' 15일 'KOBAS 2018' 막을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린 제28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 개막식(KOBAS 2018)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 각국의 방송과 음향, 조명기기의 현재와 미래를 엮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이엔엑스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5일 코엑스에서 '미디어, 모든 것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제28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S 2018)를 개최했다.

KOBAS 2018 전시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방송통신융합산업 관련 국내 유일의 전문전시회로써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전시협회로부터 국제인증 받은 글로벌 유망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방송, 영상, 음향, 조명 관련 장비들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함으로써 신개념 방송, 영상산업과 음향, 조명산업의 첨단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과 비전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최첨단 방송·영상장비 분야의 4K·8K, UHD, 3D, Smart TV, Mobile TV, 디지털콘텐츠, 카메라, VTR, 편집관련시

스템, 송출·송신관련기기, 영상편집기기, 문자발생기, CATV시스템, 인터넷·위성방송관련기기, 디스플레이, LED 등을 비롯해 Pro Audio, 마이크, 헤드폰, 콘솔, 믹서, 악기 등 음향관련기기와 조명·무대관련 장비 등 700여 기종 1만여점을 전시 소개함으로써 최신 제품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시장 3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는 'KOBAS HiFi Audio 초대전'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첨단 오디오 산업과 해외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의 제품과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미나와 공연 등도 펼쳐진다.

또 1인 미디어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크리에이터를 초대해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1인 미디어 & 크리에이터 그리고 콘텐츠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도 진행하며 전시장 Hall D에서 1인 방송미디어 특별관도 운영한다.

김승교 기자 kimsk@

한국 제안 '표준전문가 역량요건' 국제표준 승인

6월부터 미·독·일 등과 공동, 전문가 양성·활용방안 등 개발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전문가 역량요건'이 국제표준으로 승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웅)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표준전문가 역량요건' 제안서(ISA)를 승인하면서 6월부터 미국·독일·일본 등과 공동으로 주요국의 표준전문가 양성 체계 및 활용방안 등 국제표준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 예정인 부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국제워크숍을 개최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국제표준으로 완

성할 예정이다. 표준전문가 역량요건은 기업 및 표준전문가관 종사자의 표준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정의한 것으로 표준전문가 양성, 교육, 채용, 경력개발 등에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국표원은 국제표준 개발과 국제워크숍 개최를 위해 한국표준협회 최동근 수석은 국제의 장으로, 박성현 선임은 국제간사로 선임했다.

그동안 산업별로 활용도가 다양해 표준분야 종사자의 직무 및 필요역량에 대한 정의가 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 및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표준전문가의 경력개발 경로를 조사하는 등 표준인력양성 기본 인프라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승인한 '표준전문가 역량요건' 국제표준을 발간하면 국제표준화기구 161개 회원국이 표준전문가 양성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강병구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국제협업에 의한 '표준전문가 역량요건' 개발을 통해, 해외 취업 가능한 세계적인 인재 양성 등 일자리 중심의 표준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삼성 패밀리허브, 인간공학디자인상 '그랑프리' 수상

인간공학적 스크린 배치 등 사용자 중심 설계 높이 평가

삼성전자는 15일 인공지능과 IoT 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가전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2018년 인간공학디자인상(Ergonomic Design Award)' 최고상인 '그랑프리(Grand Prix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랑프리'는 부문에 상관없이 전 제품을 통틀어 인간공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품에 주어지는 타이틀이다.

'인간공학디자인상'은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사용 용이성 ▲효율성 ▲기능성 ▲감성품질 ▲안정성 ▲시장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선정된다.



대한인간공학회는 삼성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인간공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인체 치수를 감안해 스크린 위치를 적정 높이로 배치했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아동 등을 위한 '쉬운 접근 화면' 기능과 '사이드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윤정일 기자

1면서 계속 수요감축요청 발령 예측가능성 높아질 듯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DR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시험 감축지속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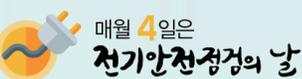
실제 발령요건과 동등한 수준의 등록시험을 시행토록 한 것이다. 참여고객의 해지조건도 현재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전력거래 개시 전으로 명시해 감축 실적이 저조한 참여고객의 해지 기회를 추가로 제공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거래를 위한 조건도 개정한다. 현행 초기등록의 경우 수요자원의 의무감축시간은 거래기간 1년간 60시간으로 돼 있다.

추가등록자원의 의무감축시간은 초기등록자원의 평균 잔여시간과 30시간 중 큰 값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30시간으로 변경하고, 위약금 단가기준도 '총 감축가능시간/12'에서 '총 감축가능시간/6'으로 변경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 수요자원 거래 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검토했으며, 이날 규칙개정위원회와 이달 말 열리는 전기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나갈 땐 뽑으세요"

"나갈 땐 뽑으세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를 빼놓는 습관으로도 전기화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